

성막의 동쪽이 가지는 의미

김광철 (신대원 2년)

I. 서론

성막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 논고를 쓰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성막에 있어서 방위(특별히 본 논고에서는 동쪽을 다룰 것이다)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미흡한 것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성막에 대한 조명과 고찰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동쪽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 나갈 것이다. 성막이라는 커다란 구조 속에서 방위가 가지는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막이 가지는 전체 의미를 조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동쪽과 관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살피며, '성막의 동쪽'이 하나님의 열심과, 메시아의 제사장 기능과, 메시아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¹⁾

II. 본론

1. 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고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성막을 취급하여 성막의 동쪽이 가지는 의미를 살필 것이다.

A. 성막에 대한 성경 신학적 접근

1. 모형론적 접근

모형이란, 어떤 진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원형이나 완전한 구현은 신약 성경의 계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모형론²⁾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볼 때 정당한 신학 연구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역사를 τύπος(모형)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성막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석과 신약 성경의 직접적인 모형론적 해석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본고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또 “만약 …… 한 것과 같이 …… 하다”라는 구문을 통해 볼 때(예, 마12:40; 눅17:26; 요3:14), 구약 성경의 사실이 신약 성경의 내용과 밀접한 영적인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예, 고전15:22; 고후3:7이하; 갈4:22이하; 히3:1-10:18) 구약 성경의 역사와 그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은 분명한 대구를 이루고 있다.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이 이에 대한 모형론적 접근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모형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그것들은 철저하게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그것들은 성격상 역사적이며 동시에 예언적이다. 그것들은 언제나 메시아 시대에 성취된다. 셋째, 그것들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이 모형들은 단지

2. τύπος(모형, 롬5:14; 고전10:6,11), σκιά(그림자, 골2:17; 히8:5; 10:1), ὑπόδειγμα(사본, 히8:5; 9:23), σημεῖον(표적, 마12:39), παραβολή(비유, 히9:9), ἀντιτύπος(원형, 히9:24; 벧전3:21)이 성경적 모형론 혹은 예표론 또는 유형론의 연구에 포함된다.

신비적인 기사거리로 처리될 것들이 못 된다. 이 모형들은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원형이 성취된 후에도 그 나름의 모형적인 의미를 지닌다. 넷째, 그것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것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것이므로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다. 다섯째, 그것들은 교훈적인 것으로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다.³⁾

2. 성막의 주제

성막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지니는 의미이다.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자주 나타난다. 특히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출33:9; 출33:10; 출40:34; 출40:35; 출40:38; 레16:2; 민9:15; 민9:16; 신31:15 등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특히 영광의 임재의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성전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이다. 솔로몬의 봉헌식에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것은 영광스런 임재였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다”(왕상8:10-11). 또 신 12:11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한다.⁴⁾ 이로 보건대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은 명백하다.

3. 신성종 역, Baker's 신학사전(서울: 엠마오, 1989), '모형, 모형론'(type, typology).

4. 박윤선, 신명기 주석(서울: 영음사, 1978), pp. 425.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이다. 성막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었다. 우리가 볼 때 성막의 외부는 별로 보잘 것 없고, 위엄도 없는 초라한 장막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성막의 의미를 하나 하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늘의 모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것은 성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이미 성경이 쓰이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10:19)라고 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완전한 것이다.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미하며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경이 쓰이기 전에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다.⁵⁾ 이런 측면에서 성전도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마 12:6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또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삼 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증거한다. 그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려는 고소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 요한은 요2:20,21에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3. 성막의 기능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성막이 가졌던 기능을 말하고자 한다. 특별히 성막이 존재하던 당시의 역사적 기능을 말하려고 한다.

5. 이종수, 광야의 성막(서울: 기독교문사, 1990), pp. 33-34.

첫째, 임재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피조계의 어떤 특정 공간을 성막으로 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이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을 보이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다.⁶⁾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편재와는 다른 성격의 임재를 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재의 공간은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한다. 신생 국가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막(1377)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느”(1377) 것이었다. 그것은 출29:43-46에 더욱 분명하게 설명된다.⁷⁾ 하나님의 거주는 회막과 결부되어 있었다. 사실 하나님의 성막(1377)은 동사 1377(거주하다)과 관계 있다.⁸⁾ 그런데 보통은 1377(앉다, 거하다)를 쓰는데, 이것은 영원한 거주를 표현하는 것이다. 천국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Frank Cross가 지적한 바와 같이 땅 위에서 함께, 또는 회막에, 후기에는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는 언제나 동사 1377(거주하다)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동사는 신의 내재와 초월성을 대조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회막은 하나님이 일시적인 거주지로 선택하신 장소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과 하나님의 활동적인 임재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설정되었다.⁹⁾ 이것은 성막 아닌 다른 곳에서 간간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는 분명 구별되는 임재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단순한 임재일 뿐 아니라 “거하시

6. 존 칼빈, 김문재 역, 기독교 강요(서울: 해문사, 1984), 1권 3장 3항.

7. 월터 카이저, 최종진 역, 구약성경신학(서울:생명의 말씀사 1992), pp. 163.

8. The New Brown- Driver- Briggs-Gesenius Herrew and English Lexicon의 1377을 보라.

9. 월터 카이저, op. cit., pp. 164.

는 곳”(1377)으로서의 역할을 성막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런 임재의 역사적 장소로 성막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자들은 성막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

둘째, 매개체적 기능이다. 성막의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기능은 제사의 장소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제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¹⁰⁾이시기 때문이었다. 성막의 매개체적 역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물이 중보의 역할을 한다면 성막은 중보의 장소로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막에서는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다. 성막과 제사는 실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성막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 각 제사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나 그 기본 목적은 동일하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성막은 대표적인 제사의 장소로서 중보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셋째, 예표적 기능이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¹¹⁾은 이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시적 기대였으며 메시아의 왕국을 가르쳐 주는 시각물이었다. 성막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해 대망할 수 있었다. 본 논고는 이러한 예표적 기능 안에서 전개된다.

10. 신 4:24를 보라.

11. 요2:21을 보라.

이같은 성막의 세 가지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이 기능들(임재의 기능, 매개체적 기능, 예표적 기능)이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목적 가운데 성막이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B.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의 방위

1. 연역법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 동시에 그 부분들은 각각의 모양대로 메시아의 특정한 모습을 예표해준다. 성막의 방위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막의 방위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임재의 기능, 매개체적 기능, 예표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성막의 방위 표시가 메시아의 특정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막의 전체적 예표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막이 커다란 나무라면 방위는 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2. 방위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방위를 말할 때, 방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쫓을 때에도 방위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에덴이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신 곳은 “에덴 동산 동편”(창3:24)이었다. 광야의 성막도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것을 방위의 기준으로 삼았다.¹²⁾ 그리고 성막과 가장 근접한 레위인의 배치¹³⁾도 성막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과 행진의 순서¹⁴⁾도 성막을 중심으로

12. 출애굽기 25-30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방위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다.

13. 민3:1-4:49를 보라.

이루어졌다. 이로 보건대 성막에서 방위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음이 분명하다.

3. 계속되는 반복이다

성막의 동쪽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광야의 성막뿐 아니라 솔로몬의 성막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민수기 7장에서 발견하게 된다. 거기서는 각 지파가 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지파의 제사가 개별적으로 중요한 행위¹⁵⁾였음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강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그것이 주는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였다면 강조의 지향을 살펴야 할 것이다.

4. 태양 숭배에 기인하지 않는다

구약은 동쪽을 일컬을 때 “해 돋는 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민21:11; 민34:15; 신4:41; 신4:47). 민3:38에서는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 돋는 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레위 자손의 배치와 12지파의 배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¹⁶⁾ 이런 표현은 성막의 방위와 태양 숭배의 연관성이 있지는 않나 하는 빌미를 짐짓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애굽의 태양 숭배 요소를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다. 우상숭배 금지는 이스라엘에게 준 절대적 명령이다. 곧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세

14. 민2:1-34를 보라.

15. 박윤선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뜻을 취하여야 한다. 곧, 이렇게 거듭 말한 것은 모든 족장의 헌물에 대하여 매번 꼭 같은 말로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셨으니 그가 그 헌물에 대하여 매번 독립적으로 취급하시어 향기롭게 생각하신 것이 분명하다.” 박윤선, 민수기주석, 7:10-83.

16. 민2:3, 민3:38을 보라.

시대에 기록된 레위기와 민수기는 태양숭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¹⁷⁾ 열왕들의 시대에도 태양숭배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¹⁸⁾ 이로 보건대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 시대에 성막의 방위는 태양 숭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성막에서 동쪽이 갖는 의미

1. 에덴 동산

에덴을 성막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논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성막을 고찰하고 있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에덴을 성막으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창3:8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에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덴은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던 장소였다. 이런 의미에서 에덴은 성막 이전의 성막, 혹 ‘원시 성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에덴은 임재 장소의 기능과 예표적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매개체적 기능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 성막’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에덴과 성막이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곳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 내셨다.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룹들과 화염검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 화염검은 접근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나타낸다(창3장). 이것

17. 신17:3 이하, 레26:30을 보라.

18. 왕하23:11; 대하14:5; 대하34:4; 대하34:7을 보라.

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의 경우와 성막의 경우에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출19:12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시내산에 지경을 정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 오직 모세만이 올라오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특별한 예외적 경우였다.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동편이다. 원시 성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에덴에도 방위가 정해졌고,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곳은 특별히 동쪽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동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밝힌 바대로 두 가지 요소만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첫째,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동쪽이며, 이것은 성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가는 것은 가능하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방위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제 3자적 위치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는 가능하나 서에서 동으로는 죽음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하겠다.

2. 광야의 성막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람이 지은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a)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성막 본체 중에서 가장 협소한 곳이다. 그럼에도 속죄일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식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모든 거룩 가운데서 나타나시겠다고 반복적으로 선포하셨다는 점에서, 이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지성소는 그 이름¹⁹⁾에 나타나 있듯이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을 의미한다. 지성소

에 비치된 유일한 기구는 법궤로 이 궤에는 십계명(왕하11:12; 시132:12)과 만나를 넣은 향아리(출16:33 이하)와 아론의 짝난 지팡이(민17:10)가 들어 있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의 유일한 출입은 동쪽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성소는 법궤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동쪽을 향해 있었다.

성소에는 진설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다. 진설상(출25:2-30; 37:10-16; 레24:5-9) 위에는 12개의 떡 덩어리가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짝을 맞추어 놓여 있었다. 이 진설상은 등대와 마주 서 있는 성소의 북쪽에 놓였다.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고 싯딤나무로 만들었다. 나무 위를 정금으로 입혔고 윗 부분은 금으로 테를 둘러 장식을 꾸몄다. 그리고 각 사면에 고리를 달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작하고 둥근 진설병은 한 개에 십분의 이 에바(4.4ℓ)의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향을 뿌렸다. 진설병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향 자손들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만들어 바꿔 놓았다(대상 9:32; 참조. 23:29; 대하13:11). 꺼내온 진설병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들을 먹었다(레24:9; 참조. 삼상21:4-7; 마12:4; 막26; 눅6:4).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었다. 레25:8에 이 떡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 떡은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었다. 진설상은 친교와 기르심 그리고 영교를 의미했다.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현존의 떡과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신령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요6:48-51).

금등대(출25:31-40; 37:17-24; 민8:1-4)는 등을 올려놓기 위한 스탠드

19.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מִשְׁכַּן הַקֹּדֶשׁ”이다. “거룩하다(קֹדֶשׁ)”는 단어의 중복형이나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헬라어도 “ἅγια ἁγίων”이라고 하므로 히브리어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사물 중의 하나이다. 이 등대는 성소의 남쪽에 있었고 밤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다. 이 등대는 가운데 줄기와 좌우편에 가지가 각각 세 개씩 이어져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빛을 만드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신약에서도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라든가, 예수는 참 빛이라는 말씀에서 상징이 계속된다(요1:9; 8:12; 9:5; 12:4).

다음은 분향단(출30:1-10; 37:25-28)이다. 분향단은 싯딤나무로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는 각각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였으며 높이는 2규빗이었다. 그것과 연하여 뿔이 벌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분향단 윗면과 네 옆면과 뿔들에 정금으로 싸고 금테를 만들어 둘렀다. 그리고 성막의 다른 기구와 같이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채를 끼워 운반하도록 하였다. 향은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태워졌으며 속죄의 피는 매년 일차씩 단 위에 뿌려졌다. 그 단 위에서는 다른 향은 사르지 못하였으며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의 술도 붓지 못하였다. 오직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였다.

이 향단은 성막 밖에 놓여 있는 제단과 비교하여 생각할 것이 있다. 제단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곳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예표이다. 그것을 통과하여 성막 안에 들어온 자만이 향단을 대면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역사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⁰ 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하는 경우로 많이 등장한다(계5:8, 8:3, 시141:2). 이로 보건대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향단이 휘장을 사이로 지성소 옆에 위치하였으니 그것도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말한다.

20. 박운선, 출애굽기 주석, 30:1-6.

성소의 출입문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곳, 즉 지성소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나 있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진설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은 모두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소의 기구들이 무의미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배치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진설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역시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를 잘 설명해 준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로 보아야 한다.

b) 성막

성막을 들어서면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번제단(출27:1-8; 38:1-7; 20:24-36)이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한 형식이었다. 경제적 계층에 따라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택했다. 번제단은 운반하기 쉽도록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놋을 입혔다.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번제단이었다. 아무도 이곳을 지나지 않고 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다. 번제단 위에는 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의 속죄제물이 올려졌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향기를 받으셨다.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드린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죄에 대한 죽임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번제단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도인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삼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나아가는 구조를 명백히 해준다. 희생의 속죄제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 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막에는 또 물두멍(출30:17-21; 출38:8, 출40:7)이 있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 직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물을 채워 둔 용기로 성막 봉사에 쓰여진 많은 기구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용기들과는 달리 물두멍은 그 크기나 형태, 운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물두멍의 물은 깨끗함을 제공해 준다. 제사장들은 제단 봉사를 하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써 손을 발을 씻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중생으로 깨끗해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엡5:26; 히10:22; 딤후3:5).²¹⁾ 구약에서 물로써 정결케하는 예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민8:7; 민19:18; 민19:20) 물두멍 역시 이런 용도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한다. 특히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만지고 거룩한 땅을 밟는 자들로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야 했다. 물두멍의 기능 역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널판(출26:15-30)과 뜰의 문(출27:9-19)을 살펴보자. 성소와 지성소 주변에 널판을 만들어 세웠다. 이 널판은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있었다. 그리고 동쪽에는 출입문이 있었다. 성막에는 동쪽에만 출입문이 있었다. 뜰의 문도 마찬가지였다. 뜰은 역시 사면이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런데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었다. 즉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뜰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만 유일하게 나 있었던 것이다.

21. 박윤선, 출애굽기 주석, 30:17-21.

c) 레위인의 배치

레위 족속의 배치는(민3:21-39)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진을 쳤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이 진을 쳤다. 동쪽으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다.

여기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가지는 비중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론은 모세와 출애굽의 여정을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지도해 온 자이다. 바로와 백성들에게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비록 부정적인 면일지라도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이로 보건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쪽에 배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진에는 모세가 함께 했다. 이것은 메시아가 제사장으로 올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다.²²⁾ 성막이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커다란 원리 아래서, 메시아의 제사장 직무를 예표하는 아론이 동쪽에 배치된 것은 메시아의 제사장 위치가 동쪽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가지는 비중이다. 모세에 대하여는 이미 신 18:15-22²³⁾에서 “너(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라고 함으로써, 모세가 이미 메시아를 예표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동쪽에 배치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2. 박윤선은 ‘민수기 주석’ 3장 7절에서 “아론”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온 회중”은 신약시대의 성도를 상징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은 아론의 직위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3.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다.

d) 12지파의 배치

12지파의 배치(출26:19-22; 민2장-3장)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세워졌다.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위치했다.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위치했다.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잇사갈 지파와 스블론 지파가 자리잡고 있었다. 세 지파 중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염두에 둘 때 이 세 지파가 동쪽에 배치된 것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 아니다.

유다 지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왕의 계통이 유다 지파로 이어질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창49:10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함으로써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장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3절)라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기록하고 있으며, 6절에서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고 한다. 특히 다윗에게 “왕”의 칭호를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은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⁴⁾ 유다 지파에게 약속된 이 두 가지 약속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12지파의 진의 배치와 연결시켜 살필 때 왕이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올 것, 즉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을 예표하는 배치로 보아야 한다.

24.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만을 기록할 따름이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각 지파의 인구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위의 내용을 지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지파 단독으로도 가장 많은 인구이다. 반대편 서쪽의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32,000명과 35,400명으로 그 수가 가장 적다. 방위별로 합계를 내어도 마찬가지이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한 서쪽은 합이 108,100명이고, 르우벤 지파를 중심한 남쪽은 151,450명이다. 그리고 단 지파를 중심한 북쪽이 157,600명이며, 유다 지파를 중심한 동쪽이 186,400명이다. 단순히 지파간의 인구별 배치로 볼 때는 인구 수의 무게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한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특별히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유일하게 동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서에서 동으로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동에서 서로 나아가는 구조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12지파가 각기 한 지파를 중심으로 네 패로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고 그 배치에서 동쪽의 중심인 유다 지파를 살펴봄으로써 각 지파의 배치가 성막의 예표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파의 배치가 동에서 서로 나아가는 구조로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e) 제사장의 출입 방향

하나님은 선별된 계통²⁵⁾에만 제사장 직임을 부여하셨는데, 레위 자손은 혈족의 출생에 의하여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물론 제사였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성막의 구조 속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구조는 분명히 동

25. 출29:1-46에서 제사장의 위임을 한다. 여기서 제사장을 선택한 이유를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말하고 있다. 거룩한 회막이기에 제한되고 특별한 사람에게 제사장의 위임이 이루어진다.

에서 서로의 이동 구조이다.

f) 방위에 기준한 성막

우리는 이상에서 방위에 기준 하여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결론이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방위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단 성막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신다²⁶⁾.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며 나오셨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먼저 오셨으며, 가인에게도 먼저 오셨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오셨고 약속하셨다. 성막의 동쪽은 이러한 하나님의 먼저 오심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성막에 임재하셨을 지라도 죄있는 인간은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여러 가지 제한된 사람, 특정한 시간, 구별된 사람, 철저한 정결을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 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성막의 구조가 보충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곧 반드시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셔야 함을 예표 하는 것이다.

26. Theodre, op. cit., pp. 63-69.

III. 결론

동쪽의 방위는 성막과 연결될 때에만 제한하여 생각할 수 있다. 성막과 관계되지 않은 동쪽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함은 성경 해석의 기초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위의 개념, 특별히 동쪽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막과 관계하여 제한된 의미에서 동쪽을 성막의 전체적인 기능과 의미 속에서 살펴보았다.

또 성막에서 방위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도는 찾을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막에서의 방위가 무의미하게 단순히 반복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성막의 방위는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성막의 한 예표적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상에서 살핀 것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성막의 동쪽은 하나님의 열심을 예표한다. 동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동쪽이고 동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있는 인간으로 남아 있는 방향이다. 성막의 동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열심을 풍성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막의 동쪽은 메시아의 제사장적 기능을 예표한다. 성막의 동쪽은 구체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나아오는 구도이며 이것은 특별한 사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을 말한다. 성막이 전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히 메시아의 제사장 기능을 말해 주고 있는 것에 준해서 생각할 때 서에서 동으로의 성막 구도는 메시아의 제사장 기능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막의 동쪽은 메시아의 인성을 예표한다. 이것은 성막의 전체적 예표와 일치하는 것이면서 첫째와 둘째 결론에 의한 유추적인 것이기도 하다. 첫째와 둘째 결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메시아의 제사장적 기능은 반드시 메시아의 성육신을 말할 수밖에 없다. 또 성막은 메시아의 육체를 예표한다. 이런 점에서 살펴 볼 때 성막에서의 동쪽은 서에서 동으로의 구도, 즉 인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메시아의 인성을 예표 한다.